

돌아온 한복(汉服)

돌아온 전통(传统)



2008년 10월 9일, 신당인텔레비전방송국에서 주체한 “제 1 차 한복회귀설계대상콩클”은 맨하튼 초지왕자연회청에서 막을 열었다.

20 여명 남녀 모델들이 우아한 고저 U형무대에서 중화민족의 풍부한 복장문화를 펼쳐보였다.

이번 콩클은 세계에 100

고 평가하였고 뉴욕류행복장전문가들은 《이번 콩클에 전시한 한복은 미래 인류복장의 시대풍조이며 도덕을 바로 잡고 전통미덕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칭찬했다.

서양인모델 Zenon 은 고대백성의 일반복장과 귀족, 국왕의 복장을 입어보고나서 《일반 한복은 무척 평온하며 생활의 의의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게 한다. 한복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정직하고 단정하고 정중한 자태를 유지하게



명 설계사의 1000 개 작품중에서 250 개를 선정하여 결승에 참가시켰다. 이번 콩클에 참가한 한복은 레의(礼仪)류와 일상생활류로 나누었다.

본 콩클평선위원들은 《상을 받은 작품들의 복장양식은 모두 간단하고 아름다우며 고상하여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복장의 전형적인 특점을 체현했으며 또한 중국 전통문화의 내포가 들어있으며 현대인의 생활방식을 결합했기에 실용 가치가 있으며 널리 보급하는데 자못 적합하다》

대만총통모교 개교 90 주년축제에서 환영을 받은 파룬궁 5 조공법

지난 10월 18일, 대만 도원현 룡담향 석문



국립소학교 개교 90 주제에서 초청을 받은 파룬궁학원들이 표현한 5 조공법은 전교

사생들과 래빈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모교의 성대한 모임에 참석한 대만 마영구(马英九) 총통은 파룬궁학원들에게 친절한 박수를 보냈고 그들이 손수 만든련꽃서표를 반갑게 받았다.

되며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복장은 몸에 알맞지 않는 다른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기에 한복은 역시 사람의 됬됨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 파룬궁학원들로 구성된 신당인텔레비전방송국은 2008년에 한복설계, 중국무용, 무술, 중국료리기능, 성악, 피아노 등 9개 종목의 세계 금콩클을 성대히 열었다. 그 중지는 전통적 예술을 전면적으로 회귀하며 신과 하늘을 존경하고 덕을 중시하고 선을 향하게 하는 전통 도덕리념을 회귀하려는데 있다.

일본도교 민중들이 4400 만 퇴당을 성원

지난 10월 19일, 일본 도교 민중들은 4400 만 용사들이 중공 조직에서 퇴출함을

성원하는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옆사진)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파출소소장의 부모



한 젊은 파출소 소장은 친척집에 갔다 파룬따파 CD와 진상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잘 보라고 했다. 신문 CD를 몇번 보았더니 어머니의 록내장 눈병이 낫아졌다. 소장은 파룬궁을 수련하겠다는 부모를 도와 사부님의 설법 CD를 가져다 드렸고 또 파룬궁학원을 모셔와서 5 조공법을 배우게 했다.

파룬따파는 나의 아들을 구해주었다.

나의 아들은 1988년부터 독품을 피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만 20년이 된다. 게다가 금년 5월 28일 아침에 정신병까지 돌발하여 온몸이 부어올랐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았지만 의사들은 그의 치료를 거절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에게 “명혜주간”에 실린 몇편의 문장을 읽어주고 나서 절로 읽어 보라고 했다. 그는 한참동안 읽더니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다!》라고 여러번 높이 외쳤다. 그때로부터 그의 병세는 날마다 호전되어 부었던 것이 내렸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냥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전법륜”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그는 한나절 열심히 읽었더니 과연 밤잠을 잘 잤고 독품에 대한 흥취마저 없어졌다. 지금 그는 신체가 매우 건강하고 독품을 근절했으며 직업까지 얻어 매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친척과 친구들은 그를 보고 판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구해준 파룬따파와 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



연변박해진상 박해 받아 세상 뜬 파룬궁학원 황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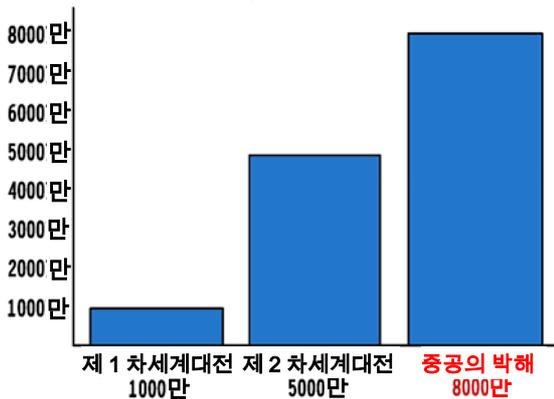
2004년 5월 13일, 황규희(黃珪熙)와 안해 지영숙(池英淑)은 연길시북산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연길시구류소에 38일동안 갇혀있다가 불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판결을 받고 9대음마하로교소로 압송되었다. 로교소 악경들은 “결연서”를 쓰라고 그를 강박했으나 쓰지 않으니 일주일동안 그의 두 팔을 묶어놓은후 땅바닥에 눕혀 놓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악경들은 연속 6일동안 그를 자지 못하게 했으며 하루에 반양이 좀 넘는 옥수수떡 4개만 주었다. 또한 악경들은 그를 하루에 14시간씩(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반년동안 쪽걸상에 앉혀 놓았는데 엉덩이가 썩어났고 고름이 말라 살에 붙은 바지를 벗을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군 했다.



2005년 4월 20일, 로교소에 석방된 황규희는 모진 혹형과 시달림에 여위여 뼈밖에 남지 않아 원래 체중이 140여근이었던 것이 50여근 밖에 안되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병이 넘어져서 상해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해보려고 비행기표를 뺐지만 2006년 5월 11일 저녁 5시경에 그와 안해는 연길시조양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40여일 동안 갇혀 박해를 받았다. 그후 그는 당시 파출소 악경과 가도판사처 악경들의 감시와 소란속에서 신체는 더욱 악화되어 2008년 9월 25일 오후에 연변병원에서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황규희의 억울한 죽음은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분개를 자아냈다. 중공악당은 좋은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하늘이 용서할수 있겠는가?

1949년이후 중공의 박해로 사망된 인수는 두차례 세계대전에서 사망된 총 인수를 초과했다



중공악경들은 불법적으로 파룬궁학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